

# 아무도 모르라고

Not To Be Known to Anybody

마태복음 5:31-32; 아가 4: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3월 13일 설교

<sup>31</sup>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sup>32</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sup>12</sup>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 노래 한 곡

노래부터 하나 듣겠습니다.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숲이 우거진 뒷산을 오르는데 발아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납니다. 웬 물인가 하고 나뭇잎을 들추어 보았더니 바로 앞에서 샘물이 풍풍 솟아나고 있습니다. 마셔보니 꿀맛입니다. 마음껏 마신 다음 그냥 안 내려오고 나뭇잎으로 다시 덮어 놓습니다. 왜요? 먼지 들어가지 마라고요? 산에 먼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라고 덮습니다. 숨겨놓고 나만 몰래 마시겠다는 말이지요? 내가 다음에 와서 마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마시게 덮어 놓고 내려오는데 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멋진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 제목이 오늘 설교제목입니다. 아무도 모르라고.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파인 김동환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다녀 놓고 김동환이 누구지 하시면 안 됩니다. “국경의 밤,” “북청 물장수” 이런 시가 옛날 교과서에 실려 있었지요. 공부하고 담을 쌓은 분들도 “봄이 오면,” “산 너머 남촌에는” 이런 노래는 즐겨 부르셨지요? 그게 다 김동환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아무도 모르라고”라는 이 시도 시로는 별로 안 알려졌을 건데 작곡가 임원식이 멋진 곳을 붙여 유명해졌습니다. 제목은 “아무도 모르라고”지만 시인이나 작곡가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알아 주었으면 싶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 시가 좋은 곡을 만나 널리 알려진 건 참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 성을 노래함

가사 그대로 본다면 사실 좀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맛있는 샘물이 있으면 두루 알려져 같이 마셔야지 왜 혼자 몰래 마시고 그걸로 모자라 남은 모르게 나뭇잎으로 덮어 놓습니까? 나누어도 얼마든지 넉넉한 걸 독점하겠다면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아무도 뭐라 안 합니까? 왜 모두들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즐겨 부릅니까?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읽는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시에 샘물이 나오면 그건 진짜 샘물이 아니고 상징이지요. 그래서 독점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 시를 좋아합니다. 은유고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남녀사이, 그 가운데서도 성을 가리킵니다.

샘물을 마시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성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갈나무 숲이니 아무도 못 보는 곳입니다. 그런 은밀함 가운데 너와 내가 성의 즐거움을 나누고, 또 남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덮습니다. 숲속에 있는데다 다시 덮어 놓았으니 아무도 모르지요. 너와 나 둘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샘물을 마시는 즐거움도 크지만 도로 덮고 내려오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어찌 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제 해석이 너무 “성”스럽습니까? 좀 억지다 싶은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곧 보시겠지만 제 풀이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스러우면서도 성스러운 그런 해석입니다.

## 더러운 성?

오늘 첫 본문에서 주님은 이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가만 살펴보면 결혼이 뭔지 그것도 설명하십니다. 음행이 아

니면 이혼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건 성의 순결, 곧 성을 독점하는 그게 결혼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순결은 성 경험이 아예 없거나 합당한 배우자하고만 성 경험을 갖는 걸 말합니다. 정조를 지킨다고도 하지요. 그걸 깨는 게 음행입니다. 간음이라고도 합니다. 음행이 뭐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게 음행입니다.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이 결혼의 다는 아니겠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성” 또는 “섹스”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곳을 찾습니다. 성을 좋지 않게 보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유교는 마음은 귀하고 몸은 천하다는 이원론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공부는 좋지만 몸으로 하는 건 운동이든 일이든 다 천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이라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니 부끄러운 것 심지어 더러운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을 천하게 보고 성을 나쁘게 보는 사상은 동서양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몸을 천하게 보는 이른바 영지주의(Gnosticism)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정상적인 부부관계마저 나쁘다고 잘못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딤후 4:3).

중세에도 이 영향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신학자들이 죄가 부모한테서 자녀에게로 유전이 되는데 죄를 유전시키는 통로가 성 관계라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같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 그런 엉터리 결론이 났습니다만 죄가 성을 통해 대를 이어간다 보았으니 성을 좋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세 내내 성을 더러운 죄악으로 보았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성을 멀리하는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은 좋은 것

간단히 말해 성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니,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성입니다. 멀리 가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섹스” 하고 무관하게 세상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아기라는 것도 생겼습니다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성의 열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부모님들의 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얻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민망하다며 나 하나 눈 감는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몸으로 결합되는 이 성을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라는 짝을 만들어 주시고는 이 둘이 성 관계를 맺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지만 그 핵심은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육체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된 다음에도 성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남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혼 휴가라는 게 있었는데 기간이 무려 일 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4:5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신랑은 한 주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해를 꼬박 집에만 있으라 하셨는데 그 한 해 동안 할 일은 꼭 한 가지,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청소해 주고 설거지를 도와주어도 아내가 즐겁겠지만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마 19:5; 막 10:8). 마음만 하나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딤후 4:4-5; 히 13:4).

## 배타적인 결혼

성은 좋은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으니 즐겨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을 주실 때 함께 주신 원리에 맞게 바른 방법으로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 생활을 위해 주신 원칙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너 혼자만, 그러니까 너와 네 배우자 둘만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즐겨야 됩니다. 성도 결혼도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타인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제삼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만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모르게, 아무도 모르라고 덮어놓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이 왜 배타적이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이 결합됨으로써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창 2:24; 마 19:5; 막 10:8; 고전 6:16; 엡 5:31) 결합된 그 순간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쉽게 말해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러니 성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큰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성을 통해 하나가 되면 그 둘은 이제 한 몸이 된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타적인 결합이 사회 제도가 된 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은 결혼보다 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라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성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흔히 말하는 속도위반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미혼 남녀가 성 관계를 맺으면 그대로 평생 부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신 22:28-29).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혼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부모끼리 만나 웬만하면 부부가 되어 살도록 도왔습니다. 무모한 점도 없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비슷하지요. 성이 곧 결혼이고 결혼이 곧 성입니다.

그래서 석 주 전 살핀 것처럼 간음을 피해야 됩니다. 간음은 육체적 결합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놓고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가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을 더럽히는, 다시 말해 하나가 되라고 주신 성을 오히려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수단으로 쓰는 죄악입니다.

## 뜨겁게 사랑하라

너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게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모르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충분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게 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5:15-19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가 김동환의 시를 잘 풀었지요? 잠언 말씀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독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아내를 우물 또는 샘에 비기면서 그 물이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성은 남편과 아내 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 아내의 샘물이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다 마셔 주어야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남편이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 말고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됩니다. 아내를 언제나 암사슴처럼 암노루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말로 품이라고 참 포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젓가슴을 가리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성적인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남편이 나 하나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수도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각방을 써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고전 7:5). 내 몸을 나 아닌 배우자가 주관한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덮어 두어라

성은 부부 두 사람만 즐기는 것이기에 마실 땀 잘 마시고 덮을 땀 잘 덮어두어야 됩니다. 서로 만족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 자체를 좀 덮어놓는 지혜도 우리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개방된 시대, 그러니까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감추어야 할 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통도 많아졌지만 성 자체, 특히 부부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야 할 것까지 마구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 문제는 무조건 쉬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칠 건 가르치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들추어내고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만의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면, 은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근한 면이 성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들은 노래도 성을 은유로 표현해 참 아름답습니다. 존 덴버가 부른 “투데이”라는 노래에도 그런 은유가 많습니다. 성경도 성을 표현할 때 은근한 표현을 씁니다. 같이 잔다든지, 눕는

다든지 할 때도 있고, 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완곡어법이라 하지요. 영어로 유평미즘 (euphemism) 또는 서컴로큐션 (circumlocution)이라 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많이 쓰이지만 아무도 몰라야 할 이 성을 나타낼 때는 더욱 긴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화 매체를 보면 소설이나 영화나 연속극이나 숨겨야 할 부분을 드러내거나 오히려 강조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숨겨야 할 것은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 아름답지만 아름답다고 다 벗고 사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세상 풍조만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도 숨겨야 할 것들을 드러내어 잘못된 쾌감을 맛보는 부분은 없는지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친해져서 감추어 두어야 할 것들을 무심코 들추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부부 사이의 비밀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뭘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이 밝고 좋은 거라고 드러내기만 하다가는 사람의 죄와 범벅이 되어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답게 죄가 우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요.

## 주님과 나

아무도 몰라야 할 너와 나의 성에는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신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부의 성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도 그렇게 은밀한 사이, 다른 건 아무 것도 끼지 못하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 부르셨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은밀하면서도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신 거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두 몸이면서 성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래 전 아가 말씀을 통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배우자는 오직 나만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잠가 놓은 동산이며 나만 마실 수 있는 우물, 남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샘입니다.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도 서로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샘물을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덮어놓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오직 주님의 영만 와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남몰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건 음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대상,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 이기주의나 자존심이나 교만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악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부부사이를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해 언제나 성스럽게 유지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 주님을 향한 헌신도 늘 새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이 땅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부부가 나누는 성, 곧 육체관계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도 당연히 없지요. 왜 없겠습니까? 성은 너하고 나만 알고 남들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건데 그런 배타적인 게 천국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결혼해 사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성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을 잘 즐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면서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잘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즐거움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을 즐길 때 성의 무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성을 통해 태어나므로 성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러니 가벼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윤리도 이 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부가 성을 통해 자녀를 낳아 가정 윤리가 생기고 이 윤리가 범위를 넓혀 사회 윤리가 됩니다. 바탕은 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처럼 쾌락이 성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의 쾌락은 하나님이 성에 담아 주신 좋은 면 가운데 하나지 그게 성의 모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책임은 생각지도 않은 채 마구 영겨 붙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발정 난 짐승이 짝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지적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알고 보면 이 성을 가벼이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쿤데라가 잘 본 겁니다.

그렇게 성을 인생의 중요한 일부로 즐기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늘 생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영적인 차원이 있다 말씀드렸지요? 부부의 은밀한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몸을 섞어 하나가 되는 그 은밀한 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